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桐谷 이순동

한국로타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운영석 로타리재단 이사님, 윤상구 前국제로타리 이사님, 여러 선배 총재님들, 2017~18년도 회기에 저와 함께 3650지구를 이끌어주실 지구임원, 클럽회장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재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회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출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한국 로타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이동건 前 국제로타리 회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3650지구는 명실상부 한국 로타리의 종주지구로서

여러 선배 총재님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동안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박호균 총재님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실천하는 리더십으로 지구 내 클럽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3650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임하시는 박호균 총재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함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20년 후의 로타리클럽의 모습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新로타리’체제를 도입해 시대 조류에 맞는 새로운 로타리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3650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저는 이제 2017~18년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하나씩 실천해가고자 합니다. 인류에 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오신 전임총재님들과 지도자 여러분들의 명예를 잘 지켜나가야 하기에, 어느 때보다 제 어깨가 더욱 무겁고 또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한다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200여개국 약 3만5천5백여개 클럽을 통해 122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인도주의적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국제로타리는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모자 보건,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본 교육과 문해력, 수자원 및 위생,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6대 이슈 분야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가 이제 바로 저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안 라이즐리 국제로타리 회장은 “Making a Difference - 변화를 만들자”라는 테마를 선언하면서 로타리안들은 봉사를 통해 사회변화를 더욱 활발하게 해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클럽 운영을 위한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진국과 도시에서의 회원 수 감소, 회원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로타리 빙하시대로 이끌 수 있기에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강력히 추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주장한 것입니다.

1927년 우리나라에 처음 정성로타리클럽을 선보인지 90년, 한국 로타리의 첫 지구(375지구)가 발족한지 56년이라

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모두 우리 3650지구에서 일어난 일로 한국 로타리의 프론티어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로타리클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20년 후의 로타리클럽의 모습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新로타리’체제를 도입해 시대 조류에 맞는 새로운 로타리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3650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변화를 만들자”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제시한 방향에 발맞추어 이제 우리 다함께 3650지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저는 우리 3650지구가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봉사단체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위해 회원 여러분들께 함께 추진해야할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90년간 클럽을 운영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3세대가 지난 이 시대에는 적절히 변화된 지속가능한 조직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新로타리 시대’의 로타리클럽은 이제 남성들만의 모임이 아니며 여성은 물론 배우자와 형제,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연합 형태로 탈바꿈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그 기본전략으로 ‘Family Together’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를 함께 이뤄보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의 삶은 개인보다 가족, 가정을 중시하는 세태가 주를 이루며 봉사도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 간 감성을 공감하는 활동으로 변모해나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로타리안〉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로타리안〉 모임으로 발전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도 공고히 하고 인도주의적 봉사의 가치도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新로타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로타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오랜 기간 로타리를 지켜온 지구 내 리더그룹의 헌신적 열정과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 리더그룹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봉사로 함께 살아가는 기틀을 지켜주는 의인들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한발 더 나아가 로타리클럽에 대한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확산의 불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 리더그룹의 로타리에 대한 사랑 즉 「Passion for Rotary」가 전 회원으로 번질 때 3650지구의 중흥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회원증강은 로타리 봉사를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신입회원을 멀리서 찾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나의 부인과 남편, 형제, 자녀를 회원으로 영입하여 여성회원을 증강하고 회원 노령화를 예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내 가족처럼 믿고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나 고향 친구, 학교동창, 군복무시 동료, 동호회 회원 등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가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이 시대의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 로타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봉사 대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인터랙트, 로타렉트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의 글로벌 로타리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응원합시다.

로타리는 직업에 높은 윤리성을 기초로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입니다. 로타리의 봉사는 다른 단체나 봉사모임과는 다른 큰 규모이며 글로벌 성격이 강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타리의 회원이 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모임에서 기쁨을 얻고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회원들 간의 우정이 쌓일 때 신입회원이 늘어나고 회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로타리 회원의 입회는 좋은 학교의 신입학생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내듯이 로타리안은 회비부담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듯 봉사를

“ 新로타리 시대의 로타리클럽은 이제 남성들만의 모임이 아니며 여성은 물론, 배우자와 형제,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연합 형태로 탈바꿈해나가야 합니다. ”

해야 하며 그러면서 동문들끼리 우정을 애기하듯이 로타리 안으로서 우정을 쌓아가는 봉사와 교제의 회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봉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로타리안의 재단기부는 확충되어야 합니다. 전 회원이 100불 이상 기부하며 AKS, PHS 회원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3650지구는 한국로타리의 종주지구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국로타리의 흥망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로타리클럽과 첫 지구를 창립한 영예와 서울에 기반을 둔 로타리지구로서 전국 로타리지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新로타리 체제가 이뤄지면 충분히 우리 지구의 회원 수나 재단기부

등이 종주지구에 걸 맞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3650지구의 명예를 되찾아 〈PRIDE of RI3650〉을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新로타리시대’는 회원들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가족이 함께 할 때 가능해지며 가족들이 함께하는 봉사는 이 사회에 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로타리클럽 창시자 폴 해리스는 “주어진 사명을 다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때로는 혁명적인 변화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각오로 회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